

# 전통장도 만들고... 농촌문화도 즐기고...

## 순창군, 도시민 대상 농촌문화학교 인기

‘순창전통장 농촌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들의 호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추장 제조 등 2시간 인력의 ‘장류 체험프로그램’에 농촌체험과 강천산 등 주요관광지를 연계시킨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문화관광-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캠페인’의 하나로 만들어진 공모사업에 선정돼,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 및 1박 2일 동안 순창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체험과 숙박 등 프로그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쩍 성장했다는 평가와 함께 체험객도 급격히 늘었다. 올 연말까지 30개팀 1,200여명이 참여신청과 예약을 마쳤다. 이와 관련 최근 샌트컬처 문화나눔팀 45명이 1박 2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순창을 찾았다. 어린학생과 부모, 어르신, 일반인들로 고추장 구수한 이쁜 체험팀은 일상에 벗어난 덕분인지 시종일관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고추장 기능인과 체험농가도 즐겁게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객에게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기능인 집에서의 집밥 체험과 장 담그기 체험, 민속마을을 답사, 전통식생활체험, 한옥 민박숙박, 강천산군립공원 트래킹, 친환경 미니리눅장 체험, 특산물 구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인 샌트컬처의 송일근 팀장은 “전통장류의 농촌체험, 관광지를 연계한 순창전통장농촌



‘순창전통장 농촌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들의 호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추장 제조 등 2시간 인력의 ‘장류 체험프로그램’에 농촌체험과 강천산 등 주요관광지를 연계시킨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순창전통장 농촌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들의 호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추장 제조 등 2시간 인력의 ‘장류 체험프로그램’에 농촌체험과 강천산 등 주요관광지를 연계시킨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객에게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기능인 집에서의 집밥 체험과 장 담그기 체험, 민속마을을 답사, 전통식생활체험, 한옥 민박숙박, 강천산군립공원 트래킹, 친환경 미니리눅장 체험, 특산물 구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인 샌트컬처의 송일근 팀장은 “전통장류의 농촌체험, 관광지를 연계한 순창전통장농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단체체험객 확대와 개별 단위, 가족 단위 체험객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농촌체험지도사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여행하기 좋은 시기에 여러 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순창군의 10~20년 뒤 순창의 미래 소득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딜까?

###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다목적홀서

### 진로·취업정보 공유 캠프 개최

전주대 문헌정보학과는 지난 7일 다목적홀에서 ‘진로 및 취업정보 공유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개발원 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등대문구답십리 도서관, 원주군립도서관, 열린전자 작은 도서관 등 정부 및 지자체 도서관과 (주)아이리스닷컴, (주)에이비커리어 등 문헌정보 관련 기업 등 문헌정보 실무자들이 취업전략 전문가로 참여해 자신들의 취업 노하우와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취업 포트폴리오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우수자 발표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지도교수 진로상담과 총 17개 기관이 참여한 1:1 심층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장재영 학생은 “이번 진로 및 취업정보 공유 캠프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와 현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막연하였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규환 문헌정보학과장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



전주대 문헌정보학과는 지난 7일 다목적홀에서 ‘진로 및 취업정보 공유 캠프’를 개최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 진로 및 취업 생태계 정보를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학생 스스로 진로 및 취업 성공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 및 취업정보 공유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2년 연속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18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 시상식에서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에 선정된 원광대는 학생들이 창업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필수 역량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창업역량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창업장학금 혜택을 주는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창업지원’ 분야 우수대학에 올랐다. 원광대는 토크 투는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로 무장한 창업역량을 갖춘 인재가 사회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창의, 창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를 넘나드는 융·복합형 교육과 함께 전국 유일의 ‘1학과 1기업 창업’, 창업역량인증제, 삼합신사 교육, 인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수탁 운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시상식에서 최재규 인력개발처장은 “저학년부터 졸업생까지, 국내부터 해외취업까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지역 청년의 취업 고민을 해결하는 지역대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 김제 광활농협,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개최

김제시 광활농협(조합장 신광식)과 광활농협 소속 여성산악회(회장 김안숙)는 지난 6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했다. 이날 광활농협과 여성산악회 회원 30여명은 배추 1,500포기의 김장을 담가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 생활하는 경로당과 소외된 독거노인 가정 등 120여 곳에 전달했다. 광활농협 여성산악회 김안숙 회장은 “지역농협과 함께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추운겨울에 어려운 이웃에게 작으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신광식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광활김장 식재작업이 한창인 시기에 바쁜 일손과 집안일을 제쳐두고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동참해 준 조합원과 여성산악회 회원들이 매우 고맙고 광활면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데 더욱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북과학대 박현수 교수, 농촌재능나눔 대상 수상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디자인과 박현수 교수(63)가 “개인공모 부문(훈격 국무총리)”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시상식은 고령화, 농촌마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침체된 농촌마을에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대통령 2, 국무총리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8) 등 총 56점의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박 교수는 전북과학대학교 개교 초기에 부임하여 2013년도 정읍시 농촌재능나눔사업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난 6년 동안 디자인과 학생들과 함께 도자기문패를 1년에 2개 마을씩 제작하여 기부함으로써, 정읍시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농촌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능기부학생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지역농촌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김작이 역할을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또한, 전북과학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전공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정읍시와 대학은 상호 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촌재능나눔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2014년도 농촌재능나눔 전국 최우수상 수상, 2015년도 농촌재능나눔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에는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한편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동체문화 형성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생활 공간형 농촌재능나눔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농업발전 대안 발굴 워크숍 개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NH농협생명명산수련원에서 농민과 소통하고 농업발전의 대안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정읍시 관내 각 농협장과 경제상무, 농업인단체 등이 참석하였으며,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의 효과적인 도입과 농업분야 보조금 및 농업인단체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읍시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진행에서 탈피하여 지역농업연구원 조경호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 및 자유·청중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수평적 소통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농업인과 관련기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찾는 등 정읍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원경찰, 우체국 집배원 교통안전교육 실시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는 지난 7일 남원우체국 3층 회의실에서 집배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 판소리 홍보동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륜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남원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 현황 및 원인을 소개하였으며, 이륜차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 및 인도주행의 위험성, 신호위반과 음주운전 등을 사례별로 소개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이륜차 사고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부상 및 사고 이후 중상의 확률이 높은 점을 설명하면서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꼭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한상호 경비교통과장은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법규위반행위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경찰, 지정분위기 조성 위한 청렴동아리 간담회

남원경찰서는 지난 6일 남원김병중 미술관에서 청렴동아리(회장 양광모) 춘향꽃푸르미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 등 지정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체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의무위반 근절 및 내부 자정운동 조성을 위해 청렴동아리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미술관 관람 등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애쓰는 청렴동아리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 최홍범 남원경찰서장은 “청렴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행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경찰상 확립에 앞장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경찰,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6일, 무주반딧불시장 주변에서 자전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예방과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9월 1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한 이후 2개월간의 주민홍보 및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치며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는 전차적 안전띠 착용과 병행하여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서는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 어르신들의 자전거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5일 장터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공개된 장소를 선정하여 음주단속을 전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공감 받는 계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경찰 청문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실천 주력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연말치안이 전제되고 있는 시기에 잦은 모임 등 여수선 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이완하기 위해 비위예방 실천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 증가로 음주운전(속취) 등 의무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승진시험 대비를 핑계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직원들 스스로 의무위반 근절에 대한 동참과 협조하지는 않되 의견을 모았다. 정보보안과장 장성환 경감은 “한순간의 실수로 경찰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